

인천공항에너지 주식회사  
경영지원부장 이 계 철

## 지역난방사업을

## 시작하면서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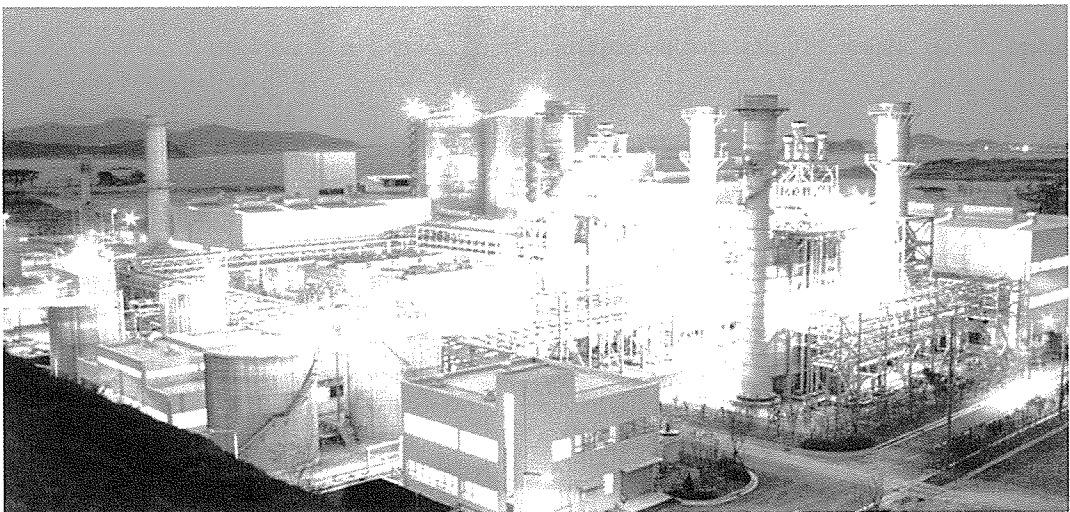
5월의 가득한 초록빛 하늘아래 한국지역난방 협회의 e-energy 협회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회원사간의 든든한 우정과 단합으로 더욱 선두주자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

지역난방이란 다소 생소한 단어와 출렁거리는 파도가 바라보이는 영종도 섬 위에 앞으로 완성될 공장을 생각하며 주야로 바쁘게 돌아가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동북아 중심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는 인천국제공항 지역에 양질의 전기와 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지도 만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

저희 회사는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(전기·열) 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-439호(1996년1월5일)에 의해 시행되

는 사업으로 1997년 2월 21일 금호-현대 민자사업단(정부출자 포함)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. 1998년 상반기 설계 및 기자재 공급업체로 현대중공업, 시공업체로 금호산업을 선정하였고 같은 해 4월 23일 발전소 건설공사에 착공, 2년 6개월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31일 준공함으로써 약 1,700만 여평에 이르는 공항 전 지역에 전기 및 냉·난방열을 그리고 약 83만여 평의 배후 지원단지 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. 총 투자비는 설계변경 등을 포함하여 약 2070여 억원에 이릅니다.

저희 발전소는 영종도, 용유도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의 한축을 이루는 삼목도 북동쪽 기슭의 약 21,000평의 부지에 건설되었습니다.



47MW 가스터빈 발전기 2기, 95T/H 배열회수보일러 2기, 33MW 스팀터빈 발전기 1기, 125T/H 보조보일러 2기, 열수송 시설 등의 주요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로 구성되어 전체 시설용량이 전기 127MW, 열 306Gcal/h이며, 에너지 효율이 83%를 상회하는 복합화력식 열병합발전소입니다. 발전소의 연료는 청정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
돌이켜 보면, 열병합발전소 민자유치시설사업은 그 태동에서 준공까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특기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. 즉, 본 사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시행된 최초의 열병합발전소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(Project Financing) 방식으로 추진된 민자사업 중 최초로 SOC 채권(1,000억원)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업입니다. 저희 발전소는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최초로 전력을 직판(直販)하게 되는 특정 전기사업자이기도 합니다. 가장 어려웠던 일은 사업 초기 주요 기자재 발주시점에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 위기가 겹쳐 한때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적도 있었으나, 정부와 출자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던 일일 것입니다.

저희 발전소의 준공일은 2000년 10월 31일이나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시운전 전력공급을 위해 2000년 2월 1일부터 조기 발전을 시작하였고



2000년 7월 18일부터는 열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. 본 발전소를 지원하는 한전 영종변전소와 154KV 송전선로가 2000년 8월 8일 준공되어 발전소 발전설비와 병렬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. 향후 저희 발전소는 인천시가 주거, 상업 및 공업 지역으로 개발하게 될 공항 고속도로 남측지역에 열을 공급하게 되어 있으며, 열공급 구역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.

사업착수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귀중한 기록자료로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리라 믿으며, 앞으로 인천공항에너지(주)가 그 설립목적을 훌륭히 달성하여 민자사업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